

중보자와 구속주가 한 분이시다

디모데전서 2:1-8

2022년 5월 15일 설교

크리스 식스 목사

우리는 올해 New City Catechism에 있는 52개의 질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것에 대한 훌륭한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20번 문제를 읽고 그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질문 20: 구속주는 누구입니까?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유를 사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바치신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늘 사이에 다리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다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째 편지의 일부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Timothy는 젊은 목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로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로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디모데전서 2:1-8

1 내가 먼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들을 대신하여 중보하고 감사하라.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여 우리가 경건과 존귀로 구별되는 평화롭고
고요한 생활을 하도록 하십시오.

- 3 이것은 선하고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 4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 5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 6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유를 사려고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세상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 7 그리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믿음과 진리에 관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와 사도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 8 나는 사람들이 모든 예배 장소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하나님께 들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8절을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이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께 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신을 경배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열어 주소서.

아멘.

이 구절들을 함께 걸으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서 무엇을 이해하기를 바라시는지 살펴봅시다. 다시 1절과 2절입니다.

“1 내가 먼저 너희를 권하노니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감사하라
2 임금들과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같이 기도하여 우리가 경건함과 존귀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게 하소서.”

2절을 보니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화롭고 고요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주 좋은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도시에서 가능할까? 갈등과 역경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평화롭고 고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갈등과 혼돈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8절에서 언급한 분노와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삶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갈등과 논쟁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들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서 옵니다. 모든 갈등과 혼돈을 인간이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의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고 고요한 삶을 살고 싶다면 외부에서 우리를 구

원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미혹한 후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 내가 너와 여자 사이,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일으킬 것이다.

그는 네 머리를 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칠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사탄을 물리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사탄에게 심하게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사탄을 이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대신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모든 인간의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기 위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1, 4, 6절에서 ”모든 사람” 또는 ”모든 사람”을 언급한 때를 주목하십시오. 죄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원수로 만듭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수직적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죄는 또한 이 땅에서 원수를 만듭니다. 수평적으로 갈등이 있다. 수직적 갈등과 수평적 갈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양쪽을 대표하는 사람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중보자. 중재자는 갈등이나 논쟁에 참여하여 양측을 돕는 사람입니다. 중재자는 다른 두 사람이나 그룹 사이를 바로 연결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중보자의 좋은 예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5:17-26에서 우리가 본 본문의 일부입니다.

“17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 몇 사람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앉았더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치유 능력은 예수님과 함께 강력했습니다.

18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돛자리에 메고 와서 그들은 그를 예수 안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19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몇 개 떼어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병자를 돛자리에 눕히고 예수님 바로 앞 군중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20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젊은이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7절에 “주의 치유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그 방에는 예수님과 그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동네에 중풍병자가 있어 낫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까? 그는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고맙게도 이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장애물을 멈춰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사람들

에게 믿음으로 충만한 결단력과 희망에 찬 확신을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지붕을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중재자였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와 예수님의 치유 능력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이 방에는 마비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불구가 되어 스스로를 고칠 수 없습니다.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이 죄와 싸우는 것을 묘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로마서 7:18-24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 내 속에 곧 죄 많은 성품이 거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의를 행하고자 하되 행할 수 없느니라
19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든 합니다.
20 그러나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사는 죄입니다.
21 나는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그른 일을 하게 된다는 삶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22 나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23 그러나 내 안에 내 생각과 싸우는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나를 아직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24 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삶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바울은 죄를 당신과 내 안에 살아 있는 기생충으로 묘사합니다. 걸리는 질병과 같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를 선택하기 때문에 실제로 더 악화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자신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변화에 무력하고 무력합니다. 누가 나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인가? 우리는 구조자가 필요합니다, 친구. 구속자와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법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사와 죄인이 있습니다. 시편 50:6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함은 하나님이 친히 심판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시며 그의 법은 선하고 참되십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당신은 10계명과 하나님의 다른 율법에 불순종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당신의 행동에 불순종합니다. 때때로 당신은 생각이나 마음으로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유죄입니다.

모든 갈등과 혼돈을 보기 위해 세상을 둘러본다면 우리는 모두가 유죄라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로마서 3:10-12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 성경에 이르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12 모든 사람이 돌아섰고 모두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11-12에서 심판 날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물러가 있었고 있을 곳도 없었더라.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고 책들이 펴 있더라

그 때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도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우리가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 문제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해칠 때 당신은 그것을 말합니까? 누군가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신체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당신의 신뢰를 배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아니, 물론 당신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록하시며 우리의 죄를 단순히 잊어버리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중재자로서 법정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저는 이 사람을 매우 사랑합니다. 나는 그가 그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를 처벌해 주세요. 그러면 그가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보자이자 구속자가 하는 일입니다.

나와 함께 5절과 6절을 다시 보십시오.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실 수 있으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유를 사려고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적시에 세상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될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대한 교환(Great Exchange)이라고 부릅니다. 교환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무언가를 줄 때입니다. 내가 Jorge에게서 차를 사고 싶다면, 나는 그에게 돈을 주고 그는 나에게 차를 준다. 교환은 우리 둘 다 무언가를 주고 둘 다 무언가를 받을 때 발생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봐주세요. 예수님은 한 편에 계시며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반대편에 있어, 내 죄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나는 내 부모 아담과 해와처럼 완고하고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오염은 우리 몸 전체에 흐르고 우리 영혼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까지도 더럽히고 우리의 선한 의도를 더럽힙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큰 교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우리의 죄는 단순히 잊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의 죄에 대해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의 오염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죄 없는 사람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무고한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었을 때 나의 죄와 수치와 허물과 형벌이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함과 존귀를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2:6은 이렇게 말합니다.

“6 그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사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세상에 주신 말씀입니다.”

Great Exchange는 정원에서 시작된 문제를 뒤집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수치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와 수치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의 죄와 수치는 무덤에 묻힌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의 부끄러움은 존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영광을 우리와 공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기록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8 예배하는 곳마다 사람이 성냄과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 깨끗하게 씻겨졌다면 당신과 나는 거룩한 손을 가졌습니다. 당신과 나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분노와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기 위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와 함께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 내가 먼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감사하라”

”중보하다”라는 동사가 보이시나요?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 당신은 중재자입니다. 우리 법정 장면 기억나?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중재하기 위해 법정에 오셨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우리의 중보자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을 잃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중재할 수 있으며 아버지께 그들을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구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18-20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8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와 화목하게 하는 이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9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는 사람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화해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20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호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간청할 때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과 책임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분노와 논쟁을 볼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상처를 입은 이웃을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대표하는 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이웃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를 통해 호소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풍병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고, 예배에 초대함으로써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러한 일을 하겠다는 우리의 헌신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과 지상에서 그분의 왕국 활동에 참여하는 특권에 대해 그분께 감사합시다.

예수님, 위대한 교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력했고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묶여

있었습니다. 판사는 우리를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중재자,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자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과 존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임을 알고 당신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 기도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사용하도록 상기시켜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One Voice Fellowship